

민주 '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 내부 단속·결집 극대화

주말 국회서 대규모 규탄대회... '쌍특검' 추진 정당 설득 투트랙 이 대표 '영장 혐의 반박' 설명자료 배포...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나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물론, 부결되더라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다면 극심한 당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결집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검찰과 여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원심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규탄대회에 모인 인원은 민주당 추산으로 3000여명에 달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장외로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당은 이런 시각엔 선을 긋고 있다.

당 관계자는 19일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야 열려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당장은 계

획된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견해차가 있는 계획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도 표결까지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의 17일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주'의 워크숍 만한 자리에 들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는 여론의 '방탄 프레임'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 숙제다.

우선 지난 17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때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20쪽짜리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당 차원의 대응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 국면이 끝나고 재판으로 들어가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가능해져 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체포동의안에 따른 수세적 정국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강력한 대어 반격에 나서는 전략의 초점은 특검(특별검사) 추진에 맞춰져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이른바 '쌍

특검'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부정적인 정의를 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의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과 이견이 적지 않아 특검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 고문인 박지현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못지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기도에 승리하지만, 정의당의 공조도 필요하다"며 "반윤(반윤석열) 세력의 대응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검사독재 정권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체포특권, 정치공작 막으라고 있는 것”

민주 '특권 포기 요구' 국힘에 반박... '여당이 민생엔 관심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약화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들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그토록 살살이 훑았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이냐.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

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흉위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흉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과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면서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이나,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매우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야당 대표를 유폐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진 “日, 강제징용 배상 정치적 결단을”

한일 외교장관 뮌헨서 회담... 日 향후 대응 관심

정부가 여전히 한-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강제징용 배상 쟁점에 대해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 일본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얼마나 전향적 결정을 내리느냐가 결국 최종 합의로 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5분간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최근 강제징용 배상 협상이 막바지로 들어감에 따라 국장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상체널을 외교차관 이상의 고위급으로 올렸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시간 반에 걸쳐 회담하고 남은 쟁점에 대해 점점 모색을 시도했다.

뒤이어 마주 앉은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국장급과 차관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부분과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부분 등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장관이 일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외교당국 차원에서 가능한 점점 모색은 할 만큼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은 이해했으니 이제 서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1965년 한일정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으려면 외교당국 선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가 됐다는 인식으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지방정기 라운지

“전남도의회,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최선”

차영수 도의원, 국회 토론회 참석

차영수(더민주·강진)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에서 “전남의 희망찬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자리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의 철박함을 가슴에 새기고, 전략을 잘 논의해 많은 공공기관이 전남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그는 “1차 이전 때 16개 기관, 8천여 명의 임직원이 광주·전남 혁신도시 나주로 이전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된 상태”라며 “도의회도 지난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피니스CC 회원모집(24차) 공고

■ 사업개요

1. 명 칭: 해피니스 CC
2. 시설규모: 회원제18홀, 대중제18홀 (전장 12,884M)
3.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4. 총회원모집구좌: 524구좌 (정회원: 428구좌, 평일회원: 96구좌)

■ 회원특전

1. 히트 정회원 (3억2천): 30구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골프텔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2. 공통사항
 - 계약금 완납시: 정회원 혜택(본인만) 부여
 - 잔금 완납시: 모든 혜택(무료회차, 지정회원, 동반자, 무기명카드 발급) 부여

■ 입회신청 계약기간 및 신청 계약장소

1. 기간: 2023년 02월 10일 - 분말 종료시까지
2. 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화 061) 330-5001-4

■ 입회금 수납은행

계좌번호: 001-127-012066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 상기 계좌 이외의 입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회원가입신청서, 회원 회칙, 이용약관에 의거합니다.

■ 가입안내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화 061) 330-5000

■ 신청서 구비사항

개 인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신청서 1부 (당사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지정회원 변경하면 사진 각 3매 •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및 지정회원 변경하면 사진 각 3매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포함)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소방사거리)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박병자(410219-XXXXXX)
• 최후주소: 여주시 서교3길 14-(서교동)
• 등재기준지: 전남 여주시 동명면1길 9

피상속인 방 박병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년 단10046호로 신청하여 2023년 2월 1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2월 20일

• 상속인: 1. 이상화(440524-XXXXXX)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49, 704동 1401호 (죽전동, 도담마을7단지트디에이비즈)
2. 이해영(690127-XXXXXX)
여주시 여천체육공원길 52, 101동 1006호(신기동, 우림빌유)

• 신고기간: 2023. 2. 20 ~ 2023. 5. 2.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2이해영의 주소

해산으로 인한 채권자 및 구출자증권 제출공고(2차)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1월1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해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산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의 조합원 및 직원 자계서는 위의 기간 내에 회사의 본점에 출자증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영광군 모량면 동삼로1길 95-36
대표조합원 권혁범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